

공과대학 여대생의 취업준비 실태 분석에 따른 지원방안 연구

김지심*, 문남미**, 용승림***, 강성희****

명지전문대학 컴퓨터공학과
호서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컴퓨터소프트웨어학 전공
인하공업전문대학 컴퓨터시스템과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e-mail:jisimkim@mjc.ac.kr

A Study on improvement of supporting for job preparation of female Engineering students

Ji-Sim Kim*, Nam-Mee Moon**, Seung-Lim, Yong***, Sung-hee Kang****

*Dept. of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Myongji College

**Dept. of Division of ICT Engineering, Track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Engineering, Hoseo University

***Dept. of Computer Systems and Engineering, Inha Technical College

****Bangmok College of Basic Studies, Myongj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공과대학 여대생의 취업 준비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4년제 대학교의 공과대학 여대생 16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목표를 설정한 여대생은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능력이자 부족한 능력으로 전공활용능력을 꼽았다. 연구결과에 따라 취업준비지원의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1. 서론

공학 계열을 위한 정부의 인재양성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추진됨에 따라 공과대학의 입학생과 졸업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 여대생들의 입학생과 졸업생 수도 각각 24.4%, 21.7%로 늘어났다. 공학계열의 전체 취업률은 2011년보다 -1.7%로 감소하였으나, 여대생의 취업률은 10.6%로 증가하였다. 이는 여대생들도 남성 중심의 공학 분야에 흥미를 느끼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회적 지위가 향상될 수 있음에 이공계 분야로 진출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공학 계열에서 여대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로 여전히 낮다. 관련 연구들은 공과대학에서 소수인 여대생들이 여전히 학업과 취업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학계열 여대생들의 취업 준비 현황을 분석하고 적극적인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남성 중심의 공학 계열에서 특히 여대생들은 높은 수준의 진로효능감을 가질 때 성공적으로 학업을 수행하고 취

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관련 연구에서 전공을 공부하면서 남학생들은 진로효능감이 높아지나 여학생들은 진로효능감이 낮아지고 전공에 대한 흥미도를 잃게 되며, 결국 전공분야로 진출하고자 희망하는 정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다.[2] 또한 여대생들은 적성과 흥미가 무엇인지 아는 비율이 낮고 자신감도 부족하다고 하였다.[6] 이러한 상황에서 전공과 관련된 취업 분야나 정보 역시 부족하다. 직업능력을 함양함에 있어서도 실무능력보다는 학점관리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직업능력을 함양하지 못하고 있다.[2][3]

3. 연구대상 및 도구

본 연구에서는 학업과 취업준비의 실태를 조사한 관련 연구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3개의 연구도구를 본 연구 목적에 맞게 구성하여 사용하였다.[1][2][3] 설문내용은 <표 1>과 같이 같다. 모든 응답자들이 공통적으로 응답한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분포한 10개의 4년제 대학의 공과대학 여학생 17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결과 중 성실하게 응답한 167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구체적인 진로 목표를 설정했는지에 대해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 설정하지 않은 응답자가 102명(61.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목표를 설정했다고 응답한 여대생은 66명(39.5%)로 나타났다. 목표를 설정한 여대생 중 설정한 시기에 대한 응답으로는 대학교 3학년 때 설정한 응답자가 23명(35.4%)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이전이 20명(29.8%), 대학교 4학년 때 설정한 응답자가 13명(20.0%)로 나타났다.

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능력을 묻는 순위형 다중응답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한 결과, 1순위는 전공활용능력 53명(31.7%), 2순위는 문제해결능력 35명(21.0%), 3순위는 대인관계능력 38명(22.8%)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인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능력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능력에 대한 다중응답 분석 결과, 뛰어난 능력의 1순위는 대인관계능력 61명(30.3%), 2순위는 정보활용능력 24명(11.9%), 3순위는 자기개발능력 23명(11.4%)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족한 능력 1순위는 전공활용능력 45명(22.4%), 2순위는 의사소통능력 40명(19.9%), 3순위는 문제해결능력 20명(10.0%)으로 나타났다.

<표1> 역량 인식 결과

(단위: 명, %)

순위	뛰어난 능력	부족한 능력
1	대인관계능력(61, 30.3)	전공활용능력(45, 22.4)
2	정보활용능력(24, 11.9)	의사소통능력(40, 19.9)
3	자기개발능력(23, 11.4)	문제해결능력(20, 10.0)
4	의사소통능력(20, 10.0)	수리능력(18, 9.0)
5	문제해결능력(19, 9.5)	정보활용능력(18, 9.0)
6	직업윤리의식(17, 8.5)	자기개발능력(15, 7.5)
7	수리능력(13명 6.5)	자원관리능력(14, 7.0)
8	자원관리능력(10, 5.0)	대인관계능력(13, 6.5)
9	전공활용능력(9, 4.5)	조직이해능력(11, 5.5)
10	조직이해능력(5, 2.5)	직업윤리의식(7, 3.5)

취업정보를 획득한 경로에 대한 다중응답 분석 결과, 인터넷을 통해서 가장 많이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98, 33.4%), 다음으로 지인을 통해서(84, 28.7%), 교수님을 통해서(38, 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력서 제출, 면접 횟수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 이력서를 한 번도 제출해 본적이 없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108명, 64.7%). 면접 역시 한 번도 응시한 적이 없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22명, 73.1%).

면접 등의 지원과정에서 성차별적인 요소를 느낀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오를 응답한 여대생은 30명(25.0%), 예를 응답한 여대생은 10명(10.0%)으로 나타났다. 예라고 응답한 응답자들 중 어떤 부분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느꼈는가에 대해서, 가장 많은 차별을 느낀 부분은 육아문제, 회사문화에 대해 각각 12명(32.4%)이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외모, 체력 등을 판단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취업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어려운 점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공활용능력의 부족(84명, 21.9%), 전공에 대한 자신감 부족(83명, 21.67%)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이 외에 취업에 관한 정보 부족(56명, 14.62%), 나의 적성이 무엇인지 모르는 점(51명, 13.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막연한 불안감, 좁은 취업 시장으로 인한 어려움 등이 있

었다.

<표 2> 취업 준비 시 어려운 점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전공활용능력 부족	84	21.93	진로 미결정	45	11.75
전공 자신감 부족	83	21.67	어학능력 부족	43	11.23
취업 정보 부족	56	14.62	성별에 따른 차별	19	4.96
내 적성을 잘 모름	51	13.32	기타	2	0.52
합계	383	100			

한편, 학교의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진로 및 취업을 위한 학교의 지원 만족도는 2.81(SD = .79)로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공과대학 여대생의 취업 준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학교 3학년 때에야 목표를 설정한 여대생이 가장 많았다. 여대생들이 보다 일찍 진로를 탐색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진로적성 검사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진로 및 취업을 위한 학교의 지원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므로 학교 내 관련 프로그램 운영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취업에 필요한 능력과 관련하여 여대생들은 전공활용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가장 부족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상위권을 차지한 문제해결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아닌, 외국어능력과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적 능력을 함양하는 것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이 문제점으로 해석된다. 이와 동시에 여대생들이 채용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중에서는 회사 문화에 대한 것이 가장 컸다. 그리고 참여하기 희망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맞춤형직장 체험 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미루어 볼 때, 대학 내 지원센터에서도 여성친화적 기업 등을 발굴하거나 체험 프로그램을 학과와 함께 유기적으로 관리하여 여학생들이 실무능력을 강화하고 사전에 현업의 강도나 조직문화를 체험하여 취업 후 직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참고문헌

[1] Kim, Y. E., Han, J. Y. and Oh, M. S. (2013). Analysis of Gender Characteristics of Employment and Career Development Paths of Engineering Graduates.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6(6), 19 - 28.

[2] Lim, J. Y. and Lee, Y. M. (2009). A Study on College-to-Work Transition of Women College Studen[ts Majoring Science and Technology. Journal of Employment and Skills Development, 11(2), 25 - 47.

[3] Gu, S. Y. and Kim, D. I. (2014). A Study on the Effects of WIE programs on women engineers' employment and career duration.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7(6), 3 - 11.